傘下 支部 動靜

▲協會本部

·지난3月31日 19차 정기총회에서 본회 제8代會長으로 선출된 宋景太氏는 4월1일부터 조용한 가운데 주변및 내부현황을 파악해오다가 4월12일 정식으로 본부 임직원 전원 참석하에 조촐한 취임식을 가졌다。또한 총회에서 위임된 임원선임권한중 우선 副會長 1명에 달맞이商社代表인 林連學氏를 指名選任하여 협회운영관리업무를 보좌토록 조치하였다。(취임인사 별도참조)

·신임회장、부회장、사무국장 일행은 이날 오후 농림수산부 田作課長및 農產局長을 人事次 禮訪코 앞으로의 協會운영및 발전책에 대하여 광범위한 협의를 갖인바 있다。

▲江原道支部

지난14日 定例녹생회를 원주시소장 황인구씨 주관으로 소집하고 전환된 본부체제에 부응하기 위한 앞으로의 수권자세 방향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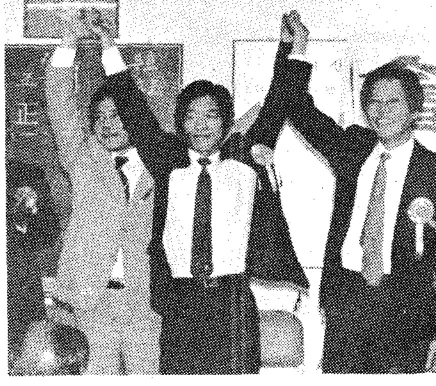
▲釜山支部

지난10일 박길부지부장주관으로 月例녹생회를 소집하고 본부체제전환에 대한 협조지원대책과 5月中 소집되는 自體총회에 대한 제반 준비사항을 협의결정하였다。

▲全北道支部

지난20일 전북지부장이 화익씨 주관으로 김제에서 月例녹생회를 개최하고 지역내 최근의 生藥유통정보를 교환하면서 전환된 본부체제에 대한 협조지원대책을 협의하였다。

◇당락이 판명된 후…



…승자도 패자도 없다。

표창수여자 名單

(제19차 정기총회) 88년 3월31일

朴萬鍾會長 감사패 (會員一同)

△여주군소장 이웅황 표창패 △철원군소장 박영입 표창패 △영동군소장 김운호 표창패 △청양군소장 조병섭 표창패 △전주시소장 정영모 표창패 △보성군소장 정형모 표창패 △영주시소장 류북규 표창패 △거제군소장 전재택 표창패 △부산강서구소장 김수동 표창패 △제주서귀포시소장 임철 표창패 이상 10名

87년도 생약재 수출입 분석

작년도의 생약재 수출입실적을 분석해보면 수출생약재는 거년도와 비슷하게 은행엽이 物量面에서나 금액면에서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시호、산수유、세신、백출、백작약、복령、천궁、애엽、길경、삼백초、오배자、황기、당귀、지황등 순으로 역시 국내인기품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물량면에서는 지황이 으뜸이고、시호、복령、백작약、산수유 등 순으로 총수출실적 1천8백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수입품종은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공급량이 부족한 동물성 한약재인 녹용、녹각、우황、용안육、오공、사향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총수입실적은 3천6만불 정도로 수출보다 약 배에 가까운 외화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실적에 버금가던가 이를 능가하는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협회 계통이나 수출업계에서 한층더 분발하여 대외판로 개척에 힘써야 할 것이다。

생약보게재용 廣告 접수

協會는 다음달부터(5月) 機關紙인 生藥報에 대한內實에 充實을 期하고 편집調和를 한층 높이기 위하여 各級分事務所및 會員들이 要請하는 廣告를 게재하고 주변여망에 따라 앞으로 3종 우편으로 取扱할수 있도록 部數를 5천부~6천부 이상으로 증가시킬 計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各支部長및 郡·區 事務所長 또는 모든산하 會員께서는 廣告홍보가 必要時 本紙를 많이 活用하여 주실것을 要望하며 주변 企業이나 건재商會에도 많이 권유하여 機關紙 發展에 기여할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廣告원고는 2단내에게재할수 있어야 하며 기본內容만을 주셔도 무방함。

※廣告料는 찬조형식이며 최저 열가로 봉사함。

<편집실>

〈독자투고 1〉 알콜중독 1단계

최근 우리나라 성인의 17%가량이 알콜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연세의대 李鎬榮교수팀)가 발표된바 있다。또 지난해서울대의 조사에서는 한국성인남자의 알콜중독률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미국의 12~15%보다 1·5배 정도나 높은 수치로 동양인은 서구인에 비해 알콜중독이 적다는 기존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이같은 높은 알콜중독률의 배경에 대해 학자들은 ①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에 따른 사회병리적 현상증가 ②퇴폐적 음주풍조의 만연 ②독한 술의 소비증가 ④유전적 성향등을 꼽고있다。이와함께 남자는 술을 먹을줄 알아야 한다는 막연한관념、음주행태에 대해 대체로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우리 술문화에도 큰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용인 정신병원 崔秉浩박사는 「알콜중독이란 술의 주성분인 알콜(애탄올)에 대해 심리적、육체적의존상태가 되는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서서히 진행되며 재발이 잦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게되는 명백한 질병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알콜중독은 해방감을 위해 때때로 마시다가 점차 횟수가 늘면서 알콜에 내성이 생기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알콜없이는 아무런행동을 못하고 폐인이 되는말기단계까지 3~4단계를 거처 진행된다고 한다。흔히 술을 안마시면 손이 심하게 떨리는 상태가 되야 알콜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쯤되면 이미 말기단계에 접어든 것이라는게 崔박사의 지적이다。숙취로 하루종일 고생하고서도 저녁무렵 다시한잔을 하면 편안해진다던가 때때로 기억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는 정도면 이미 중독환자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자신을 단순한 애주가 정도로 여기고 있다가 어떤계기로 술을 못마시게 된뒤 불안초조 환각등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서 중독환자임을 알게되는 경우도 많다。

알콜중독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술을 일체 끊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는 자신의 의지력 여하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그러나 스스로의 조절능력을 상실한 단계에는 별도리 없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한다。치료는 주로정신과 영역에서 이루어진다。집단치료、개인치료、가족치료、교육행동치료등을 개개인의 증상과 진행정도에 따라 병행하게된다。또한 알콜중독의 큰 특징중 하나가 재발이 쉽다는 점이므로 치료후 또다시 술에손을 대지못하도록하는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알콜중독은 그동안 주위에서 폐인으로 취급、방치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었으나 사실은 제대로 치료만하면 얼마든지 정상을 되찾을 수 있는 질병이다。

알콜중독을 예방하려면、술자리는 ①풍부한 안주와 함께 ②느린속도로 순한술을 ③3사람이상 모여 ④1주일에 1회를 넘지않는 범위로 갖는것이 좋으며、기억이 끊긴 경험이 있는사람은 이미 중독 1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즉각 술을 끊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안양시 사무소장 이봉선 제공>

〈독자투고 2〉 決明子에대한 藥效異聞

最近 들어온 東京生藥會報를 훑어보니 決明子 藥效에 대한 재미나는 異說이 있기에 여기 紹介합니다。

藥用植物園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때때로 藥草나 生藥에 관한 異聞을 듣게됩니다。

決明子를 栽培하여 가을에 收穫한 決明子로서 하브茶를 끓여 모두가 試飮을 하기도 합니다。이 글을 기고한 東京약용식물원 원장은 본래 便秘성이 없기 때문에 決明子에 대한 藥理作用을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職員들 中에는 절대로 試飮을 하지 않는者가 있다고 합니다。그 사람들은 이 茶를 마시면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차잔의 半정도를 마셔도 急行이나 特急처럼 바빠서 의자에 차분히 앉아 있을수가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人間의 체질은 百樣百色으로 사람에 따라 藥理作用에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本草綱目에 따르면 눈이 붉고 눈물이 자주날때 決明子를 장기간 服用하면 精光을 더하고 몸을 가볍게하며 푸른입술을 낳게하고 肝氣를 돕고、精氣를 더하게 한다。또는 벼개를 만들어 베면 頭風을 낳게 한다。

肝熱에 의한 風眼이나 亦淚를 치료하는데는 매아침마다 정결하게 다려서 마신다。百日後에는 夜間에 물체를 分明하게 식별할 수 있고 신장을 돕고 蛇毒을 해독시켜 준다。

잎을 데쳐서 먹으면 오장을 돕고 눈을 밝게하는데 매우 좋은 效果를 나타낸다고 記載되어 있다。

이와같은 藥理效果의 진위는 고사하고 決明子가 以外의 藥效를 갖고 있다고 믿는 한 婦人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저 한다。

작년 가을 피부에 한기를 느낄 정도의 오후 한날씨에 약용식물원을 찾아온 團體손님을 案內하고 있던中 어떤 中年女性 한분이 돌연 큰소리로 아! 『있다 여기 있는거요!』하며 『園長님 이것은 肩痛에 잘 듣는 藥草가 아닌가요』 其女가 자적하고 있는 약초는 決明子였읍니다。『그와 같은 이야기는 들은바 없는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가요』『여긴데요 『이 藥草원에서 들었어요』『우리 職員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아니요 職員분이 아니고 藥草教室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어요』『선생님도 그와같은 말을 할리가 없다고생각되는데 婦人이 직접 들었던가요』『아니요、직접제가 들은것이 아니고、우리집 主人이 약초교실에서 決明子가 肩痛에 效果가 좋다고 메모하여 왔기에 즉시 藥局에서 구입하여 다려서 마신 결과 그처럼 결리던 主人의 肩痛이 3日째되는 날부터 매우 가볍게 되고 결리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그래서 저도 다려서 마셨어요。저의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어깨가 편해졌어요…』

이 두분의 肩痛의 原因이 便秘에 起因된 것인지? 또는 다른 영향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분의 견통이 決明子로서 낳는 體質의 소유자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어떤 中年부부의 肩痛이 決明子에 의한 부茶로서 낳았다는 이야기 있니다。

※이글은 東京生藥會報誌에 기고한 약용식물원장의 글을 번역 발췌한 것입니다。 <사무국 제공>

〈독자투고 3〉 88年度 協會定期 總會를 參觀하고…

○우리나라의 資產 靈驗한 生藥 資產은 效率的으로 管理하여야 살림살이가 富裕하게된다。

亞細亞大陸의 남단에 位置한 우리나라는 東方三八木運과 南方二七火運을 中央五十土氣가 迎起하여 子時로부터 寅時까지의 우리나라에만 惟獨한 甘露精氣運을 받아 春夏秋冬 季節이 相生하는 原素를 養已함이 特性이다。

우리나라産 藥材 草·根·木·皮·果實 種子는 어느나라의 것보다 靈驗性能을 가진 藥이 많다。그中 代表的인 것이 人蔘、地草 天麻 즉 天、地、人의 氣養性을 들 수 있다。

○紀元前으로부터 鄕藥政策을 樹立까지

人間의 生體育成을 養生케하는 藥生이 天體的 理致로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國祖 檀君의 아버지 桓態께서 檀桓임금께 약쑥 세묶음과 마늘세통을 주신 그뜻이 바로여기에 있는 것이라 본다。

그 藥效가 紀元前부터立證되어 國民治療藥으로 使用되어 오던 것이다。

그를 世宗大王때에 와서 1419~1450年 사이에 民族醫藥學樹立을 實施하게 하였든바 그때가 李朝의 隆盛期에 該當되며 偉大한 業蹟을 後世에 남겨주신 것이다。

醫藥的 內外治療方 및 藥草管理와 農事法書 等 모든 基礎를 定立하였으며 特히 醫療制度의 整備를 樹立하여 鄕藥術을 多大的으로 發展시켜 當時부터 國民保健에 大業을 政遂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産과 唐材의 效能比較로 高貴性 立證

世宗3大 辛丑10月에는 正朝使 李圭德、副使 黃자후에 命하여 唐藥과 鄕藥을 比較 研究케하여 自國産鄕藥의 高貴性을 깨닫게 되어 임금의 命으로 國産藥을 장려하였으며 外國産藥材를 研究케한 實蹟은 오늘과 비교해도 偉大한 大王임은 自明한 事實이다。

이때에 刊行된 鄕藥採取月齡이며 鄕藥集成方 85卷과 醫方類聚 260卷等이 立證하는 것이다。

○生藥採取法 刊行

鄕藥採取月齡刊行은 世宗7年 1428年에 典醫監正을 노중예、副正 박윤덕 집현전의 유효통에게 命하여 世宗13年에 刊行되었다。이 冊書는 우리나라産鄕藥을 100餘種 以上 羅列하였고 藥草의 아래에 香名을 낱낱이 記錄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採取時期를 季節別로 記錄하여 藥味 藥性을 알게 하였다。

八道의 分布를 調査하여 記述되어 있으며 當時의 藥用食物을 至今도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니 現在도 學者들이 鄕藥研究에 많이 쓰고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世宗地理誌에는 全國에 分布한 生藥의 實態를 바르게 알 수 있게 刊行되어 우리가 生藥栽培나 藥材普及에 큰 常識이 되고 있다。

○生藥協會長에게 바란다。

우리 協會員들은 各地方에 地域과 土質에 마추어 分擔栽培를 現實에 맞게 生産하여 지난날보다 科學的인 生藥生産普及으로 國內外 流通構造에 있어 신속하고 適當한 信賴를 할수 있도록 新任된 宋會長께서는 多年間의 經驗을 살려서 本協會로서 明實共히 國民保健에 寄與는 勿論이요。生産者나 消費者가 信義로서 相扶相助할 수 있는 去來體係를 確實히 해주기 바라는 바이다。

附言하고 싶은것은 藥草栽培에 새로운 消息과 特用作物에 關한 消息이며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生藥材들에 特性이나 生産할 수 있는것들의 技術指導가 必要하다고 보고 生産 및 購賣情報를 神經써주길 바라는 바이다。

<韓國生藥協會 中央會員保健學博士 金傑泰>

(祝) 發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충청북도 지부

지부장 이종철
청주시 사무소장 우명규
진천군 〃 이지욱
괴산군 〃 임재석
영동군 〃 김운호
보은군 〃 황춘환
단양군 〃 장기홍
제천시 〃 이광우
음성군 〃 심창식
청원군 〃 최종운
제원군 〃 이한승
청주시 공판장장 정진석

1988년 4月 20日